

**동우컬럼**

왜 남 눈치를 보냐?

우리 아들이 어릴 때 일이다. 내가 찬양 할 때 춤을 추는 것이 사춘기를 지나는 민감한 아이들에게는 좀 부끄러웠나 보다. 어느 날, 아들이 “아빠, 춤 안 추면 안 돼요?”란다. 그의 말에 나는 “아빠는 사람들 보라고 그러는 게 아니야. 하나님 보시라고 그러는 거란다.”라고 말해줬다.

다윗은 법제가 성으로 옮겨올 때 너무 기뻐 하체가 드러나도록 덩실덩실 춤을 추었다. 그것을 본 아내 밋갈이 ‘아랫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데, 체통을 지키라.’고 한 소리 하자 다윗이 이렇게 말한다.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저가 네 아비와 그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로 여호와 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삼하6:21). 가장 어리석고 무식한 자가 누구일까? 남의 눈치 보느라 내 할 일을 못하는 사람이다. 사람들이 볼까봐 소리 내서 기도 못하는 자들, 사람들 볼까봐 회사에서 식기도 못하는 자들, 장로 눈치 보느라 할 말 못하는 목사들, 자식이 두려워 눈치나 살피는 부모들, 그들이 가장 어리석은 자들이다. 눈치를 보려거든 하나님 눈치를 봐야 한다. 사람 눈치 보다가 하나님 눈 밖에 나면 나만 손해 아닌가.

사울을 보라. 그의 종말이 비참했던 절대적인 이유는 바로 사람의 눈치를 살폈기 때문이다. 막강한 블레셋과 싸워야 할 판에 사무엘이 오지 않자 백성들이 두려움에 흩어지기 시작했다. 사울은 그들의 눈치를 봤다. 그래서 그만 사무엘 대신 번제를 드리고 만다. 또 하나님ی 아말렉과의 전쟁 때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했는데도 제사를 드린다는 핑계로 좋은 양과 소를 살렸다. 이에 사무엘이 나무라자 그는 자복하기는 커녕 사무엘 옷을 잡으며 내 백성들이 보는 눈이 있으니 제사를 드리고 돌아가라고 사정한다.

사람 눈치를 보면 사람의 종ियो, 하나님
의 눈치를 보면 하나님의 종이다(갈1:10).
오직 하나님의 눈치를 살피며 ‘하나님 앞
에서 득죄할 수 없다.’된 요셉처럼 살아야
한다. 사람의 눈치를 보다가 세세토록 저
주받는 빌라도처럼 살면 절대 안 된다.
사람 눈치 보지 말라!

나는 이 땅에 예수를 전하러 왔다

하나님의 일은 결국 하나님이 하신다. 목 사님이 항상 “나는 한 게 아무것도 없다. 다 하나님이 하셨다. 나는 기도하고 그분 의 말씀에 순종했을 뿐이다.”라고 말씀하 시는 이유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 루시기 위해 사람을 준비하시고, 그 일꾼 들의 헌신을 이끌어내신다.

이번 필리핀(Philippines) 세부(Cebu) 집회도 체육관 비용을 대며 처음 불을 댕긴 조봉환 한인회장, 직접 실무를 맡아 한국과 필리핀을 오가며 최선을 다해 집회를 준비한 강요셉 장로, 그리고 현지에서 발로 뚫은 이대운 집사를 비롯하여 세부교회 유상진 목사와 성도들의 헌신과 노력이

전을 위해 힘쓰기로 기도했지 않은가. 또한 집회 준비에도 안전에 최우선을 두고 만전을 기했다. 아무런 사고 없이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뿐이다.

목사님은 이번 필리핀 세부 방문을 통하여 총 8회에 걸쳐 설교하시며 집회를 인도하셨다. 집회를 준비하는 리더 및 청소년들을 가르치시고, 세부예수중심교회에서 주일 및 수요일예배를 인도하셨다. 그리고 목회자 및 실업인을 위한 리더 세미나, 세부콜리세움(Cebu Coliseum) 체육관에서 진행된 이틀간의 집회에 더하여 집회 시작 전, 콜리세움을 찾아온 목회자들

부어까지 3차 통역으로 진행된 첫날 집회에서 목사님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설교하시고,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며 예수 그리스도의 현재성을 기사와 표적을 통해 보여주셨다. 또한 집회에 참석한 모든 이들에게 한국 성도들의 헌금으로 준비한 쌀과 음식을 제공해주었다. 이를 연이어 모든 참석자들에게 제공하는 쌀은 대형트럭에서 내리는 하역작업에 시간이 걸리자 트럭을 콜리세움 정문 앞에 세워놓고 트럭에서 직접 일일이 나누어줘야 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은혜 가운데 귀가하며 쌀을 받아 돌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은 정말 기쁘고 보람된 장



필리핀 세부집회가 열린 세부콜리세움(Cebu Coliseum)

합력하여 선을 이루었다. 또한 한국에서 각종 현수막 디자인을 맡아 수고해준 신운유 자매, 밤을 새워가며 현수막 프린트 작업으로 헌신해준 김축복 장로도 있다. 또한 세부집회를 위해 물질을 대며, 합심으로 기도한 한국의 성도들이 있다.

목사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한 나라, 한 도시를 방문하여 많은 영혼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일은 이처럼 대대적인 노력이 투입되는 영적 전쟁이다. 그 과정에는 악한 영들과의 무수한 전투가 계속되고, 그 험난한 과정을 기도로, 믿음으로 넘고 넘어서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다.

특히 이번 집회를 앞두고 국길현 장로가 집회 중 사고로 사람이 죽어 나가는 꿈을 꾸었다는 계시로 온 성도가 집회의 안

을 가르치시는 등, 그야말로 도착 첫날부터 계속되는 강행군으로 세부를 하나님의 도성으로 접수하기 위해 온 힘을 기울였다. 아침식사를 거르고 오전 내내 기도하시며, 점심시간조차 절약하기 위해 피자와 치킨, 햄버거 등을 시켜 드시는 등 그야말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셨다. 목적은 오직 하나, 예수를 전하기 위함이다. 목사님은 집회 일성(一聲)으로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은 예수를 전하기 위함이다!”라고 선포하셨다.

“나는 한국에서 온 이초석 목사입니다.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다는 것
을 증거하기 위함입니다.”

목사님께서 어느 나라, 어느 도시를 가나
일성으로 외치시는 메시지다. 영어 및 세

면이었었다.

하나님께서서는 첫날 첫 시간부터 성령으로 역사하사 귀신들이 떠나가고,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았다. 목사님으로서는 3자 통역을 이끌어가시며 냉랭한 영혼들의 심령에 성령의 불을 던지는 일이 얼마나 지난한 일인지 가늠조차 어렵지만, 그 혼신의 과정을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그 따르는 표적들이 나타날 때 그 기쁨과 보람은 목사님뿐 아니라 목사님을 도와 집회에 헌신한 모든 이들의 것이다. 집회의 첫날 첫 시간은 영적 전쟁의 성패가 결정되는 순간이기에 매우 중요하다. 주일 저녁에 진행된 첫날 집회는 또한 주일예배를 통해 한국 성도들이 합심으로 기도한 결과이기에 더욱 값진 승리였다. (다음 주에 계속)

한은택 목사



압환자가 예수 이름으로 고침을 받았다



쌀을 싣고 집회장 앞에 도착한 대형트럭



더러운 귀신들이 소리를 지르며 떠나갔다.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신6:4~9)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녀교육

목회 초, 국내 집회를 다닐 때는 보통 월요일에 나가면 금요일이나 들어왔고 토요일에는 주례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직 어린 두 아들이 늘 걱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들에게 매일 잠언을 한 장씩 쓰라고 했습니다. 내가 끼고 있다고 잘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그들을 붙잡아야 한다고 생각해서였습니다. 그러나 매일 검사하는 사람이 없는데 어린 것들이 매일 썼겠습니까? 제가 돌아올 때가 되면 일주일 치를 쓰느라 어지간히 바빴겠지요. 그제 아이들에게 무슨 영향을 끼쳤을까 싶었지만, 아이들이 장성한 후 그들 입으로 하는 말이 이겁니다. “아버지, 그때 억지로 쓴 그 잠언 말씀이 나를 지탱해줬어요.”

어린 가지는 잡혀도 큰 가지는 잡다 부러진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치는 것이 참교육입니다. 요즘 청년들에게 ‘왜 아이를 안 낳으려고 하나?’ 하면 ‘교육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데 그걸 감당할 수 없어서’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거 압니까? 그거 세상 교육방법입니다. 세상 교육방법으로 자녀를 교육하면 세상 임금이 쓰기 좋은 인물이 되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교육방법으로 기르면 하나님이 쓰기 좋은 인물이 됩니다. 그런데 그건 쉬워요. 돈도 안 들어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 뜻대로 교육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우리 교회 청년들은 낳았다 하면 셋은 낳습니다. 참 교육방법을 알기 때문입니다. 세상 교육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잘되라고, 남들보다 잘살라고 없는 돈 있는 돈 굶어서 학원 보내고, 좋은 학군의 학교에 보내고 유학을 보냅니다. 근데 그거 길어야 100년을 위해서 하는 교육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뿐이면 그것에 치중해야겠지요. 그러나 100년의 몇 곱, 아니 계산이 안 되는 영생, 영원히 사는 세상이 우리에게 있단 말입니다. 그 세상에 비하면 이 세상은 찰라, 눈 한 번 깜빡할 정도로 짧습니다. 그러니 어떤 세상에 초점을 맞춰야 할까요? 어디에 목적을 뒀야 할까요? 당연히 영원히 사는 세상에 들어가고, 그 세상에서 잘 사는 것에 목적을 두고 그것에 맞는 교육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나라에 들어가고 그 나라에서 잘 사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대로 가르치면 됩니다.

여러분, 근시안적인 사고가 가장 무서운 겁니다. 바로 코앞, 눈앞만 보는 자는 넘어지기 정말 쉽거든요. 멀리 보고 크게 생각해야 합니다. 큰 틀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역사하신 하나님을 보고 장차 우리에게 나타나실 하나님을 볼 줄

아는 지혜가 절실합니다. 가끔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목사님, 다음 주부터 기말고사인데 아들 수련회에 보내야 하나요? 중고등부 예배에 보내야 하나요?” 아니 이걸 질문이라고 합니까? 당연히 보내야죠. 매년 드리는 예배니까, 매년 하는 수련회니까 한 번쯤 빠져도 된다고요? 그럼 매일 먹는 밥인데 왜 매일 먹습니까? 이번 수련회는, 이번 예배는 단 한 번의 예배입니다. 지나가면 다시 드릴 수 없는 그때 그 예배입니다. 시험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시험보다 중요한 것이 있음을 알려드리

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에 맞는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정확한 삶의 목적과 방향을 알려줘야 자식들이 어디에 중점을 두고 살지 알게 되고, 세상과 부딪칠 때 어느 편에 설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교육법은 워낙 유명해서 책으로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유대인의 교육이 뭘니까? 깨끗하고 하얀 심령에 가장 먼저 하나님 말씀을 넣어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아이가 입을 떼면 먼저 ‘토라’부터 가르칩니다. ‘토라’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으로, 곧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그렇게 양육된 유대인들이 지금 세계 경제의 70%를 쥐고 있으며, 300명이 넘는 노벨상을 따낸 겁니다. 이게 하나님 교육방법입니다.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신6:6~7).

이걸 잘 보세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는데, 세상에서도 잘 되었던 말

입니다. 왜 그러냐?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호와와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와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와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와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시19:7~8).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딤후 3:16~17).

미국인이 역사 이래로 가장 존경한다는 ‘에이브러햄 링컨’은 대통령이 된 후 “오늘의 나는 내 손에 성

경을 쥐여 준 어머니 덕분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링컨의 나이 9살에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어머니는 어린 링컨의 손에 성경을 쥐여주며 ‘이 한 권의 책이 너를 세계적인 인물로 만들 것’이라고 말해주었고, 그 말씀을 늘 읽었던 링컨은 위대한 인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교육방법이 세상 교육법을 포함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교육방법은 자식이 잘못하면 때려서라고 바로 잡는 것입니다. “초달을 차마 못하는 자는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잠13:24).

제 둘째 아들이 어릴 때 거짓말한 것이 들뜬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를 지하실에 가두고 밖에서 열쇠로 잠가버렸습니다. 중학교 때는 거짓말한 것을 알고는 4개월 동안 쳐다보지도 않았습니

다. 잘못된 것입니다. 세상은 그래도 하나님은 자식이 잘못했을 때는 체벌하려고 하십니다. 채찍이 천대(千代)를 기르는 법이거든요.

엘리 제사장은 자식들이 잘못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대로 뒀다가 멸문지화(滅門之禍)를 당했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가로챘고,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했습니다. 엘리는 그것을 알고도 야단치지 않았더니 하나님이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나의 처소에서 명한 나의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의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스스로 살찌게 하느냐”(삼상2:29)라고 엘리에게 노하셨고, 진노의 심판이 예언대로 이뤄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삼상3:12). 엘리가 자기 아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삼상3:13).

이제 엘리 제사장에게만 국한된 이야기 일까요? 아닙니다. 우리 자식이 잘못하고, 악을 행하고, 잘못된 길을 가는데도 ‘오냐 오냐’만 하면 이 꼴 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들이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히12:5~8).

혹여 하나님의 징계가 있거들랑 ‘내가 미워서 그러냐?’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나를 돌아보고 회개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식이니 잘되라고, 나쁜 길 가지 말라고 때리는 것이거든요.

가정은 최초의 교육기관이요 최고의 교육기관이다

그리고, 아이들은 여러분을 보고 배운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너 성경 읽어.”라고 강요하지 말고, 부모인 여러분이 먼저 성경을 읽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교회 가야 해.” 강요하지 말고, 주일에 교회 가는 부모가 되세요. 본을 보이면 따라옵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교육방법, 곧 하나님 말씀대로 가르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쓰시기에 좋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신명기 28장의 복이 보너스로 올 것입니다. 할렐루야!



총회장 이초석 목사

:: 객원컬럼 ::

:: 교단소식 ::

미국의 선택과 위기

미국 재무부는 4월 29일 2분기 단기재정 증권(T-bill, 만기 1년 이하의 초단기 국채)을 2,430억 달러 수준으로 발행할 것을 확정 발표하였고,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는 5월 1일, 물가상승률이 목표치인 2%에 근접하지 않기에 현행 기준금리 5.25~5.5%는 계속 유지하되 6월부터 미국 국채의 월간 환매 한도를 600억 달러에서 250억 달러로 축소하여 양적 긴축(QT)의 속도를 늦추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시장에서 미국 정부가 인플레이션에 대한 강력한 해소, 혹은 민생의 부담보다 미국의 차세대 발전을 위하여 참여하고 있는 전 세계 투자자들의 혜택을 계속 보장하겠다는 것으로 인식됩니다.

한편, 이와 같은 결정은 1차 협력 당사국인 유료존, 특히 일본의 경우 일방적인 환차손을 감당하도록 만들고 있고, 무엇보다 대외의존도가 높고 주변 경제 강대국의 통화와 동조성이 높은 한국의 원화는 지속적으로 가치가 절하되는 현상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이와 같은 미국의 정책은 중국의 급성장에 대한 견제도 일부 있겠으나 2008년 이후 GDP 대비 급속하게 증가한 부채 규모가 국가 경제를 압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각국의 노력으로 불균형이 개선되고는 있지만, 2023년 말 기준 국가부채가 GDP 대비 20%를 초과하고 있고, 이자 비용으로만 매년 약1.36조 달러(한화 약1,876조 원)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를 개선하기 위해 미국 정부는 부채 규모 축소보다는 성장에 집중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가장 성장성이 명확한 AI(인공지능) 산업을 국가 주도의 최우선 전략산업으로 택하여 국제적 공조는 물론 외국의 유망기업들까지 미국에 진출하도록 하면서 선별된 AI 관련 업종에 대해서는 시장금리를 크게 초과하는 수익성을 실현하도록 환경을 보장하기 때문에 일반 투자자들은 노출되고 확인된 악재를 간과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차세대 산업을 안착시키기 위하여 투입되는 천문학적 현금과 유동성 자산의 근원이 순수한 세수나 경상 활동을 통하여 창출된 수익이 아니라 부채와 이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외부의 투자자본이기 때문에 작은 변수로 인해서도 빠르게 유출될 수 있고,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면 그 여파가 전 세계로 전이될 수 있는 위험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70년대 중반 달러에 대한 금본위 체제가 중단되고 연속적으로 오일쇼크가 이어졌을 때, 미국 및 주요 서방국가들은 엄청난 혼돈을 감수해야 했으나 페트로 달러체제의 구축을 통하여 미국은 더욱 강해질 수가 있었고, 그 근간에는 기도하는 국가수반과 국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작금에는 국가적 차원에서 회개를 외치는 소수 집단의 활동조차 크게 제약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만 도래하는 위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임윤석

.....

:: 빛과 소금 ::

문제에 대처하는 자세

작년에 있었던 일이다. 여느 때와 같이 일을 끝내고 유치원으로 둘째 아이를 데리러 갔다. 반가운 마음으로 아이를 맞이하는데 뭔가 이상해보였다. 아이가 눈을 잘 뜨지 못하고 힘없이 날 바라보았다. 선생님께서는 블록을 가지고 놀다가 자기 손으로 눈을 친 것 같다고 하시면서 다른 일을 하시느라 잘 보지 못했는데 별로 울지는 않았다고 대수롭지 않게 말씀하셨다.

그런데 집에 오자마자 아이가 눈이 아프다고 울기 시작했다. 우는 소리가 심상치 않아서 소아안과가 있는 병원 응급실로 급히 향했다. 그날은 응급치료만 받고 다음 날 오전 정밀검사를 받았는데 교수님께서 오른쪽 눈 각막이 찢어졌다는 것이다. 사진으로 선명하게 보였다. 시간이 지나면 낫긴 하겠지만 흉터는 계속 남아 있을 거라는 말씀에 순간 마음이 무너졌다. 품에 안긴 아이를 보고 있으니 원망과 불평이 나오려고 했다. 그러나 마음을 추스르고 다음 날 유치원에 갔는데 소식을 들은 선생님이 날 보고 어쩔 줄 몰라 하셨다. 난 괜찮다고, 선생님도 많이 놀라셨겠다고 하며 오히려 위로해드렸다. 집에 돌아와서 잘했다 싶으면서도 속상한 마음은 여전히 남아있었다. 남편에게 “나 아무

말도 못하고 바보같이 그냥 왔어. 한마디라도 할 걸 그랬나봐.” 울먹이는 나에게 남편은 “아니야. 잘했어. 그래도 이만하길 다행이지. 좋게 생각하자.”라며 다독여주었다. ‘그래, 내 속 시원하자고 남의 속 아프게 한들 무슨 유익이 있을까? 하나님, 이 일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주소서.’ 기도하고 나니 한결 마음이 편해졌다.

3주 후에 경과를 보러 가까운 병원을 찾았는데 의사가 “각막이 찢어졌었다고요? 아닌 것 같은데? 그냥 굵힌 거겠조. 깨끗합니다. 괜찮아요!”라는 말을 들었다. 할렐루야~!

살아가면서 수많은 일들을 만나겠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대처하자고 다시 한번 다짐해본다.

“내 하나님이며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생각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느5:19).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벧전3:9).

송지혜 집사
hello-english@naver.com

2024 서울청년부 체육대회

오직 영혼 구원에 전심을 쏟으시는 총회장 목사님의 귀한 모범을 따라서 이를 실천하고자 청년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체육 활동이라는 매개체로 새신자들에게 교회의 문턱을 낮춘 결과, 복음을 모르는 많은 젊은이들이 이번 모임에 함께 하였다. 스마트폰, OTT 등 미디어에만 빠져있는 청춘들에게 이번 체육대회는 몸과 마음을 단련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

달리기, 축구 등 여러 경기가 진행되는 가운데 저마다 높은 기량의 선수들이 등장하고, ‘우리 팀 이겨라!’ 등 열띤 응원전이 벌어졌다.

이날의 백미는 무엇보다 여자 축구였는데, 매년 체육대회의 축구는 형제들만 경기를 뛰고 자매들은 응원하였다. 그런데 이번에는 많은 자매들이 ‘여자’라는 고정관념을 버리고 축구에 흥미를 느끼고 날렵하게 슛을 쏘며 그라운드를 누볐다. 여자 축구가 진행되며 응원석의 형제들은 연신 환호를 보내며 뛰어난 경기력에 여자 메시, 여자 호

날두가 등장하는 순간을 놀라워했다. 총회장 목사님께서서는 ‘우리 소유물 중에 가장 귀한 것이 육체다. 병들면 만물이 소용 없다.’라고 자주 강조하시며, ‘내가 육체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이에 목사님의 말씀 따라 건강한 육체를 위해 체육대회에서도 청년들은 최선을 다하였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마16:26).

목사님은 ‘건강은 삶의 초석(礎石)이며 건강 위에 행복과 부귀가 건립되는 것이요, 건강이 최고자산(最高資産)’이라고 말씀하신다. 빛의 속도로 이루어지는 초고속 사회 앞에 일이 바빠서, 잠이 부족해서, 피곤해서 등등의 이유로 우리는 건강을 등한시한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은 것임을 깨닫고 내 육체를 위해 투자하는 데 인색하지 맙시다. 할렐루야!

서울예수중심교회 청년부



:: 생명의 말씀 ::

부모는 아이들의 최고의 스승

아이들은 낯은 사람을 닮지 않고 가르친 사람을 닮는다. 한국의 부모들은 가르치지 않고, 좋은 학교, 좋은 선생들을 찾아다닌다. 자연히 아이들은 그들을 닮게 되고, 부모를 닮지 않는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부모가 교육하기에 부모를 닮고 세대차도 없다.

그들은 1,900년 만에 나라를 되찾았다. 디아스포라로 온 세계에 떠돌아다니며 살던 유대인들이 세계 각국에서 일제히 귀국하였다. 그런데 놀라운 결과가 나왔다. 옷이 같았고, 예식이 같았고, 음식 문화가 같았다. 습관이 같았고, 세대차가 없었다. 부모가 교육했기 때문이다.

회당마다 토요일이면 아버지와 자녀들이 같이 와서 공부한다. 산아제한이 없어 자녀가 많다. 유대인들은 남들보다 잘되라고 가르치지 않고, 남과 다르게 되라고 가르친다.

현대 교육학의 아버지인 ‘존 듀이’의 교육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부모들은 아이들 중심이 되었다. 그의 교육 제1조가 아이가 원하는 대로 해주라는 것. 그러면 그의 특성과 소질이 발견된다는 것이다. 부모가 아이와 외식을 한다. 부모가 물어본다. “뭐 먹고 싶니?” 그래서

아이가 먹고 싶은 음식을 부모가 먹는다. 아이들이 청국장, 김치찌개를 찾지 않는다. 피자, 햄버거 등 이름도 모르는 미국 음식들을 찾는다. 세대차가 일어나기 시작한다. 음료수 대신 콜라, 사이다, 아이스크림을 찾는다. 음식의 세대차가 일어난다. 그러나 유대인은 성경의 조상들이 한 대로 하게 한다. 유대인의 조상 아브라함이 한 대로 하게 한다. 유대인들의 조상 모세가 산 대로 살게 한다. 그들처럼 십일조를 드리게 한다. 그들처럼 안식일에 놀러가고 싶어도 안된다. 그러니까 성경이 중심이 된다. 전통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그들 삶의 기준이 성경이기에, 유대인들은 어느 곳에 흩어져 살아도 기준이 확실하다.

우리나라를 동방예지국이라 했다. 그러나 작금의 현실은 사사기 시대와 비슷하다 생각한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삿21:25). 교회는 목사님이, 가정은 부모님이 성경을 기준으로 본을 보이고 교육하여 행복한 가정, 나아가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가 되기를 소망한다.

임택합 목사

:: 성경에서 배운다 ::

돌파의 힘

인도에 코틸라와라는 시골 마을에 '라운 기 부이얀'이라는 한 노인의 사연이 화제입니다. 노인이 거주한 마을은 장마철마다 홍수피해를 겪으면서도 정작 농업용수는 부족해 생업이 어려워지자 사람들이 마을을 떠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남들처럼 마을을 떠나는 것보다 지금의 마을에 운하를 만들 결심을 합니다. 그렇게 유일한 도구인 팽이로 무려 30년 동안 홀로 땅을 팠고, 결국 5km에 달하는 거대한 운하를 만들어냈으며, 이 운하를 통해 인근 3개 마을 3,000명의 사람들이 생업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가 땅을 파는 과정을 지켜보며 비웃었던 주변인들 역시 그의 의지와 업적에 고개를 숙이며 감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흔히, 어려움이 있으면 그 상황을 피하는 선택을 합니다. 물론 그 선택이 모두 나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어려운 문제

를 찾아가 만나고, 맞지 않는 신발을 굳이 신고 다닐 이유가 없지요. 다만, 그 선택을 하기 전에 내가 선 곳에서 그 어려움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뛰어넘을 수는 없는지 깊이 기도할 필요는 있습니다. '우회'가 아닌 '돌파'를 선택하는 사람들은 분명 그 과정에서 자신에게 주시는 하나님 지혜와 영감을 맛볼 수 있고, 이후 훌쩍 성장한 본인의 영성과 그 결과물들을 통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자신을 죽일 것 같은 형 에서와의 만남을 준비할 때, 다시 뒤돌아 가거나, 다른 길로 돌아가는 방법을 찾지 않았습니까. 환도뼈가 부러질 만큼 하나님의 사자와 밤새 씨름하며 오랜 숙원을 해결하고자 매달렸지요. 그 덕분에 20년 동안 마음속에 응어리진 형과 뼈뿔어졌던 관계가 바로 서게 되었고, 비로소 진정한 '화평'을 맛보게 되었지요.

한나는 수태하지 못하는 자신을 무시하고 격동하는 브닌나로 인해 괴로움을 겪습니다. 하지만, 그 괴로움에 집을 떠나버리거나 브닌나와 대적하는데 힘을 쏟는 대신 하나님과 마주하기를 택했습니다. 자신을 오해하며 나무라는 엘리 제사장에게도 그의 오해에 민감해지기보다 문제에 집중하며 원통함을 아웁니다. 결국 엘리에게 축복기도를 받고 다시는 근심 없는 빛으로 나아갔고, 결국 사무엘이라는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를 잉태하는 귀한 은혜를 입게 됩니다.

내가 선 땅에서 마주하는 어려움 앞에 극한 저항을 견디며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당신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당신의 그 용기가 인내를 만나고, 응답에 이르면 그 문제의 해결은 물론이요, 생각하지 못했던 영혼육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인명 집사
renming@daum.net

:: 신앙에세이 ::

벚꽃 엔딩

화창한 봄날 창밖을 보니 화려하게 만발한 벚꽃이 보였다. 햇살을 머금은 벚꽃 나무는 참으로 아름다웠다. 그런데 길을 걷다 마주친 아파트 골목 구석의 벚꽃 나무는 이상하게도 벚꽃이 들성들성 피려다 만 모습이였다. '아, 이곳은 아파트 건물 때문에 햇볕이 잘 들지 않아서 저렇구나.' 생각하던 찰나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마찬가지로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마치 햇볕에 더 많이, 더 오래 노출된 나무일수록 벚꽃이 아름답게 만발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더 많이, 더 오래 다가가면 인생일수록 영혼이 더욱 아름답게 피어난다고 말이다. 반대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질수록 그 인생은 들성들성 피다 만 벚꽃 나무와 같게 되고, 그 영혼은 시들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이다.

또, 오래갈 것만 같던 만발한 벚꽃이 몇주가 지나자 다 떨어진 모습을 보고는 이런 생각도 들었다. 찬란하고 화려한 인생의 짧은 순간도 이렇게 빨리 지나간다고. 당시에는 그 젊음과 청춘이 영원할 것 같지만, 야속하게 떨어져 버린 벚꽃처럼 우리 인생의 계절도 멈추지 않고 계속 변화한다고. 그래도 괜찮다. 벚꽃처럼 화려하진 않아도, 벚꽃이 지며 피어난 푸른 나뭇잎은 그 나뭇의 편안한 아름다움이 있기 때문이다. 인생의 화려한 봄날이 지나간 것 같아도 하나님 앞에 더욱 나아가면, 각자 인생의 계절에 맞는 아름다움을 갖게 된다.

설령 지금 그 나뭇잎마저도 다 떨어져 앙상한 가지만 남은 인생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가까이 서 있다면, 이 땅에서 우리의 계절이 끝나는 그 날, 하늘 나라에서 우리 영혼은 그 어느 때보다 만발한 화려한 벚꽃과 같으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결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고후4:16).

박찬영 집사
post.naver.com/imsofriendly

:: 한국 교회사 ::

최초의 한글성경 번역자 존 로스 선교사

1870년 만주 지역에 영국과 스코틀랜드 선교사들이 많이 활동했다. 스코틀랜드 장로교 성서공회는 중국 선교를 위해 한문 성경을 번역 인쇄하여 보급하는 중요한 일을 하고 있었다

윌리엄슨 선교사는 토마스 선교사가 한문 성경을 조선으로 가져가는데 큰 도움을 주었다. 후임 선교사로 1872년 8월에 존 로스와 맥켄타이어가 중국으로 온다. 윌리엄슨 선교사는 두 선교사와 조선에서 순교한 토마스 선교사의 이야기를 눈물로 나누게 된다. 조선 민족을 위해 순교의 피를 흘렸다는 토마스 선교사의 이야기를 듣고 로스와 맥켄타이어는 자신들도 조선 민족을 위해 목숨을 바칠 것을 각오했다. 우리 민족을 가슴에 품었다.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초석이 된다.”는 터툴리안의 말대로 하나님께서는 토마스 선교사의 순교의 피를 헛되지 않게 하셨다. 또한 하노비교회(토마스선교사 파송교회)의 간절한 기도의 응답으로 두 사람의 마음을 조선으로 향하게 하였던 것이다.

로스와 맥켄타이어가 조선을 찾았지만, 우리 민족은 여전히 외세에 문을 굳게 닫아놓고 열어줄 생각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우리나라에 들어오지는 못해도 조선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장소가 있었다. 바로 고려문이었다.

1874년 10월, 두 선교사는 만주 통화현 고려문에 도착한다. 그곳은 선양(당시 봉천) 아래쪽에 위치한 작은 마을로, 당시 청나라와 조선의 국경이자 합법적인 교역 관문이었기 때문에 자유롭게 많은 조선 상인들을 만날 수 있는 곳이었다. 두 선교사는 조선 사람을 만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기뻐다. 말은 잘 통하지 않았

지만 고려문을 들락거리는 사람들과 조금씩 얼굴을 익혀 가며 그네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주면 좋아하는지, 복음을 전할 기회만 애타게 기다렸다.

먼저 로스 선교사는 조선 선교를 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이 조선의 언어를 정확하게 배우는 것이라 판단했다. 로스 선교사는 한문을 모르는 사람을 위해 한글로 성경을 번역해야겠다고 생각했다. 때마침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평안북도 의주 출신인 이응찬이라는 분을 만났다. 이응찬의 도움으로 로스 선교사의 어학 실력은 하루가 다르게 늘었다. 마침내 1877년에는 선교사를 위한 한글 입문 책 <한국어 첫걸음>을 만들었다. 이 책이 영어로 된 최초의 한국어 회화 책이다.

로스 선교사는 이응찬을 통해 조선 사람을 많이 만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 그때 만난 백훈준, 김진기, 이성하는 성경을 번역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었고, 그들은 우리나라 최초로 고려문에서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로스 선교사가 성경을 번역할 수 있도록 귀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해주셨다. 고려문에 홍삼을 팔러 갔던 서상륜, 서경조 형제가 그렇다.

어느 날 서상륜이 병으로 사경을 헤매고 있을 때, 어떤 사람이 선교사를 만나면 고칠 수 있다는 이야기를 전해준다. 그 이야기를 듣고 서상륜은 중국에 와 있던 의료선교사를 통해 병을 치료받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다.

로스 선교사는 두 형제의 도움으로 1879년까지 마태복음에서 로마서까지 번역했고, 1883년에는 사도행전까지 최종번역본을 만들었다. 그리고 이듬해부터는 서

신서 번역을 본격화하여 1886년 가을, 드디어 10년 만에 신약전서의 번역이 끝났다.

이제 한글 성경을 번역했으니 그것을 책으로 만들어 세상에 널리 전하는 일만 남았다. 로스 선교사는 스코틀랜드 성서공회의 지원을 받아 번역 작업과 인쇄를 병행하여 1882년 최초 한글 성경인 <예수성교전서>가 나올 수 있었다. 처음엔 단편이나 할본 형태로만 발행되다가 남은 서신서를 추가하여 1887년 마침내 최초의 우리말 신약전서인 <예수성교전서>가 묶여져 나왔다.

그런데 이 <예수성교전서>를 국내로 가지고 오는 것도 만만치 않았다. 국경에서 계속 성경책을 빼앗겼던 것이다. 급기야 복음서를 한 장 한 장 새끼줄에 싸서 국내로 들어온다. 국내로 들어온 성경책은 책을 파는 권서인이란 사람들을 통해서 보급이 되고 이들을 통해 복음도 함께 전해졌다. 그러다 1910년 4월 2일 구약성서가 완역되어 1911년 신약성서와 함께 <성경전서>로 합본 간행되었다. 로스 선교사는 '한국인 학자가 한 명이라도 없었다면 나는 속수무책이었을 것'이라고 고백했다.

선교사가 조선에 들어오기도 전에 이미 한글성경이 만주에서 번역되었으니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놀랍다.

우리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치밀하게 사전 준비 작업부터 시작되고 있었다. 최초 '존 로스의 <예수성교전서>역'부터 시작된 우리 한글성경은 후에 여러 번의 과정을 거쳐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책이다.

김종춘 목사
kkd9191@hanmail.net

서울성전 건축헌금 계좌안내

국민은행 026401-04-297823
예금주: 예수중심교회
* 계좌 송금 시 성함과 소속교구(교회) 순서로 기입해주세요

JC 아카데미

매주 화요일 오후 8시
유튜브 생방송(노량진 교육관)
문의 02. 533. 9191